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일손 부족 어촌 자원봉사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코로나19 확산 속 농촌일손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어촌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국립공원 내 어촌마을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보리 베기, 하천 정화 등 마을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덕유산 국립공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실시한 자원봉사는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어촌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구 화원도정공장, 남원 운봉읍에 이웃사랑 성금

남원시 운봉읍 관계자는 대구시 달서군 화원도정공장의 명예시장 박경호 씨가 운봉읍 주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경호 시장은 평소 지리산 자락 운봉고원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베풀어 주는 운봉읍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을의 성금 기탁에 감사드립니다"며 "운봉읍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영예로운 승진 임용식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김태호)는 1일 2층 서정실에서 경찰관 3명에 대한 영예로운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위 2명, 경사 1명 등 총 3명이 승진 되었으며, 승진 임용자는 아백파출소 강철 경사가 경위, 금지파출소 오정규 경사가 경위, 교통조사팀 김용현 경장이 경사로 각각 승진 임용되었다.

김태호 서장은 계급장 부착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승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책임감 넘치는 업무수행으로 주민 안전의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칠연의총 의병 150여명 전사, 넋 위로

무주군 안성면, 의병들의 거룩한 충정 향토보전회 주최 주관 합동위령제

일제 강점기 시대 나라를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절했던 항일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무주군 칠연의총 합동 위령제가 1일 안성면 공정리 신6(칠연의총)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령제는 안성면 향토보존 연구회가 주최·주관 했으며 송금현 부군수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등 안성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향교 박찬걸 전교의 진행으로 국민주의와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금현 부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에서 일본군의 기습으로 전사했으며, 묘역은 1969년 주민들이 계곡 근처에 묻혀있던 유해를 수습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리는 칠연의총 위령제가 올해로 113주년을 맞았다"라며 "분들의 거룩한 충정이 무주 발전과 군민안녕을 위한 초석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안성면 칠연의총은 전북가림물 제2호로 신명선 의병장이 이끌던 의병 150여명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다.

이들은 1908년 칠연계곡 송정골



무주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매직컬 공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는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매직컬공연을 3월 31일 안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첫 회기를 시작으로 6월 1일 구천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 공연에 무주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가 신청하였으며 총 980명(14회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과 뮤지컬이 결합한 학교폭력예방 매직컬 공연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 거리두기로 진행하였으며, 초등학교는 '피터팬'이라는 주제로 동화속 피터팬을 배경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용담호 수질개선 협의회 합동정화 활동 펼쳐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 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는 1일 상진면 용담호 상류지역인 죽도 일원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주민협의회 회원과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상진면 죽도에서 이랫방항으로 약 1km에 이르는 구간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죽도지역은 150만 전북도민 및 충청도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호 상류지역으로 배어난 결정으로 인해 많은



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명의를 갖고 용담호 지킴이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청년조합원 발굴 가입운동 추진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는 최근 고창군 관내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조합원 가입 확대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의 청년조합원 기준은 197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농업인으로 고창군 지역농협의 청년조합원 가입율은 5월말 기준 17,033명의 전체 조합원중 994명으로 5.8%를 점유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고창군 관내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지역농업과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조합원 배가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NH농협 고창군지부 진기영 지부장은 "농협사업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조합원의 발굴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업인과 농협조합원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조합원



가입확대 운동추진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와 농협사업에 활력과 새바람을 불어일으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이 최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지역사회의 선진미래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남희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구급기술 경연대회 집중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오는 29일 실시되는 '전라북도 구급기술경연대회'를 대비해 집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막판 스퍼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소방본부 주관으로, 구급대원의 개인별 역량강화와 팀워크 향상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 강한 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원소방서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분배, 약물부여, 전문기도기 삽관, 팀원 및 지도의사의 소통법 등 실전과 같은 훈련에 힘을 쏟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Advertisement for a campaign titled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The place where the world is getting the warmest fastest 'Arctic'). It features a polar bear in a snowy landscape and the text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Please protect our home). The text explains that global warming is increasing due to carbon emissions from cars and factories, and that the loss of ice is a sign of global warming. It calls for action to reduce carbon emissions.